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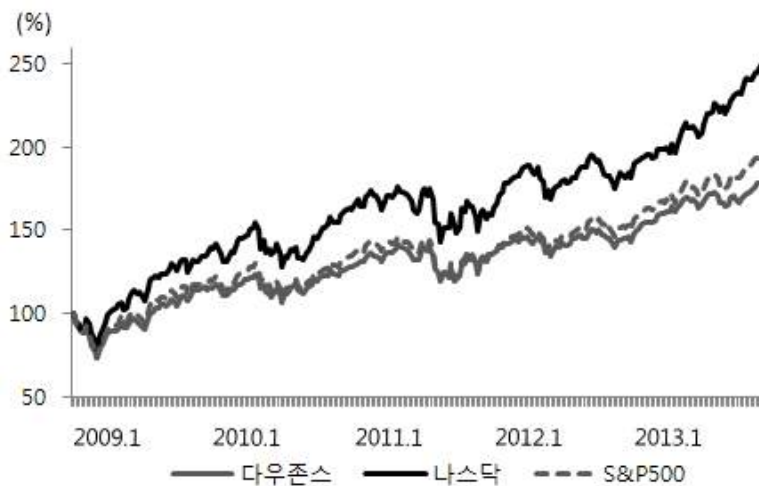


# 미국 주가에 대한 버블 논란과 시사점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11월 21일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6,000 포인트를 돌파하고, 11월 26일에는 나스닥지수가 13년 만에 4,000 포인트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주가에 대한 버블 우려가 제기됨.
- 11월 21일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6,000 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고 S&P500지수도 1,800 포인트의 최고치를 기록함.
-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월 26일 2000년 이후 13년 만에 4,000 포인트를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였으며, 이는 1999년에서 2000년 IT버블 당시 5,000선을 돌파했던 때를 제외하고 사상 최고 수준임.
- 미국 주요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자 일각에서는 증시활황이 양적완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이라는 우려를 제기함.

〈그림 1〉 미국 주요 주가지수 추이



주: 2009년 초 주가지수를 100으로 환산함.  
자료: Bloomberg.

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과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버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, 미국 증권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 또한 버블 가능성을 경고함.

- 12월 1일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독일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,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상황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과열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함.
  - 실러 교수는 특히 금융섹터와 정보통신(IT)섹터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함.
- 미국증권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11월 2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식과 채권시장 등 모든 자산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식시장의 거품은 이미 터졌어야 한다고 경고함.

■ 그러나 재닛 옐런 차기 연준의장과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모두 버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힘.

- 재닛 옐런 차기 연준의장은 11월 14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주가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품 논란을 반박함.
- 이후 11월 27일 전 연준의장 앨런 그린스펀 또한 한 인터뷰에서 주가의 거품을 염려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함.
-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주식시장이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주식시장 버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.

■ 우리나라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자산버블과 거리가 있으나 해외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금융시장에 민감한 변액보험상품의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- 세계 각국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한 자산버블 문제는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영국, 독일, 중국, 브라질 등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제기되고 있고,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시장 버블 방지를 위한 가용정책은 제한적임.
- 미 연준이 양적완화의 축소를 시작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이에 동참할 경우 자산시장에서의 급속한 자금유출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금융시장에 민감한 변액보험상품의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(Financial Times 등)